

위기의 지역 경제,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침을 열며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났다. 위니아마저 부도 처리되어 주요 계열사들은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정부와 광주시는 중소기업위기지원특별지역선정과 고용위기 지원 등으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위니아MF, 대우홀딩스, 위니아 본사는 파산선고로 자산 매각되거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위니아사태로 주요 계열사에서 총 1200억원의 임금체불, 총 450여개의 협력사들의 줄도산으로 이미 협력사만 7-800억원 규모의 체불 임금과 대규모의 고용불안이 진행 중이다.

삼성 광주가전공장 물량이 멕시코로 이전하려다 트럼프정부의 멕시코 관세 정책으로 계획이 취소되어 천만 다행이었으나 여전히 불안하다. 해외이전 협력업체 피해규모는 최대 3500억원으로 예측되었다.

거기다 우리나라 중화학산업을 이끌었던 여천석유화학공단이 원자재 가격 급등, 설비과잉, 국제유가변동,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매출과 수출이 급감하여 롯데케미칼, LG화학, 여수NCC 등 주요 5대 기업이 공장 가동중단 및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공장가동률이 평균 7-80% 수준이고 여기에 수많은 협력업체가 일감이 없어 비정규 일용직부터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5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로 대응하고 있고 지역 및 노사공동의 대책위가 특별법지정과 구조조정 대응을 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위기해소 전망은 어렵다.

여기에 신규건설수주액은 작년 대비 광주가 87.3%, 전남이 71.1% 감소로 최악이고 미분양 재고주택은 증가되어 건설업은 심각한 침체와 구조적 위기상태에 있다.

중소기업 경기 역시 어려운 형편이며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제조업의 위기가 중소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고용침체와 청년실업증가로 결국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거기다 불행이 겹쳐 무안공항의 참사 사건도 발생했다. 이 정도면 광주·전남 경제는 적색신호다. 광주·전남 경제현황을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는 더 정확한 현실을 정치권과 중앙 지방정부와 시도민이 알아야 해서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문제해결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의 경제위기의 본질은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과 부실 경영 등에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지역민만이 아닌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기도 하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란 구호처럼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 위기를 회생시켜 줄 것을 호소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어서다. 범정부적 위기지역경제대책 TF를 즉각 만들어 주길 제안한다. 금호타이어 사태 회복을 위해 광주가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부터 해 주길 정부에 요청한다. 가장 위기에 처한 하나의 지역을 살리는 길이 나라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우리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할 것이다.

社說

‘농망법’ 송미령 장관, 그렇게 인재가 없나

새정부, 농정철학에도 안맞아

윤석열 정부에서 농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입됐다. 대통령실은 ‘성과 중심의 실용인사’라 설명했지만, 농민사회는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한우법 등을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 부르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장관이 다시 농정을 총괄하게 됐다는 점에서 농민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정부 벼 재배면적 감축, 농지 규제 완화, 수입쌀 확대, 축산 규제 강화 등을 밀어붙였다. 이러한 정책은 현장의 농민들로부터 ‘농민 없는 농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입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즉각 집회를 열고 철회를 촉구했고, 한우협회 등 축산업계 역시 거세게 반발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송 장관은 거부권의 상징’이라며 농정 기초 변경을 요구했고, 서삼석 의원은 ‘전 정부의 실패를 반

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로 항의의 수위를 높였다.

농정은 식량 주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다. 농민의 동의와 참여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식량주권 확보에도 차질을 안긴다. 그간 농업계의 강한 저항을 불러왔던 인사를 그대로 유입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이다. 국민 통합과 현장 경청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기초와도 상충된다. 송 장관은 유입 직후 ‘과거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며 ‘농망법’ 발언을 사과하고, 쟁점 법안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농민단체와의 소통과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농민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갔다. 진정성 있는 행동이 없다면, 말뿐인 사과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농민과의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법과 제도를 농민 중심으로 되돌아보고, 농정 철학을 다시 세워야 한다. 갈등을 치유하지 못한 채 농심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향후 정책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빛원전, 짝퉁에 모두의 미래 맡길텐가

전수조사로 관련자 엄벌해야

영광 한빛원전에 납품된 일부 부품이 비순정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원전은 최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황산이 누출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납품된 부품들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지만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할 일이다.

25일 영광군의회 한빛원전특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수력원자력발전에 납품된 베어링 일부가 모조품으로 확인된 사건과 관련, 현장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제2차 원전특위 회의에서 모조품 베어링 납품 문제가 논란이 된 후 부품의 신뢰성과 안전관리 대응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은 계획예방정비 중인 5호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행히 현장에 장착된 베어링은 순정부품으로 확인됐지만 보관중인 일부 부품이 모조품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영광 한빛특위 장영진 위원장의 설명이다.

앞서 한수원은 자체 조사 결과 한빛원전에 납품된 베어링이 총 314개로 이 가운데 92개를 비순정품으로 파악했다. 과거와 달리 한수원 스스로 모조품이 납품됐음을 밝히고 지역사회와 대책을 논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모두 6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한빛원전의 규모나 역할 등을 감안하면 허투루 넘어갈 일이 아니다. 기존의 납품업체가 바뀌고, 한수원을 퇴직한 임직원이 관련 회사에 재취업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하면 다른 부품에서도 모조품이 납품됐을 개연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이후 품질검사 절차도 많이 완화됐다고 한다.

아무리 사소한 부품이라도 비순정 제품은 산업 설비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을 꺼려한다. 품질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기 때문이다. 작은 고장이라도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는 원자력발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관계기관은 납품된 모든 부품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모조품을 가려내고 납품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한수원도 납품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한층 강화시켜야 한다. 영향이 미미하다고 ‘짝퉁’에 모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 공항은 12일 만에 발효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 이후 본격적인 운영을 재개했다. EPA 연합뉴스

서석대

빛은 색이다. 맑고 청명한 하늘 빛. 탁 트인 하늘 아래 펼쳐지는 푸른색 바다. 해질 무렵, 온 대지를 붉게 물드는 노을. 이 모든게 색이고 빛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결코 색을 볼 수 없다. 빛이 있어야 색이 드러난다. 빛은 하늘과 바다, 땅과 함께 잉태됐다. 인간은 그 빛을 다양한 색으로 이름 지었다. 색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이다. 그러나 인간은 색을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문화로, 기록으로 남겼다.

3만년 전 선사 시대, 동굴에는 그림들이 그려져있다.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이 그림에도 색이 있다. 색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흙 속에 포함된 광물이다. 광물에는 철분이 함유됐는데, 이를 이용해 빨간색, 노란색, 갈색 등을 만들었다. 광물을 가루로 빻아서 동물성 기름이나 물로 혼합해 사용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더 많은 색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집트 토양은 광물 성분이 풍부했다. 여기에 불로 가열하고 혼합해 여러 색깔을 만들었다. 빨강, 녹색, 보라색, 금색 뿐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웠던 파란색도 있었다.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빛깔 무지개는 ‘색의 향연’이다.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일곱개 빛 줄이다. 영국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1704년 백색광을 분해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의 범위인 무지개 스펙트럼을 발견했다. 색의 스펙트럼을 처음 밝혀낸 사람은 미술가가 아니라 과학자였다. 이는 ‘색채혁명’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안료 발명이 뒤따랐고, 수천 가지로 확장된 색의 르네상스를 맞았다.

그런데 색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면 빛이 바래졌다. 사상·이념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잦아졌다. ‘색깔론’이다. 사람을 색깔로 나눠서 구분한다. ‘중북프레임’을 씌우는데 빨간색을 입혔다. 이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도 색깔론이 등장했다. 국민의힘에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으로 탈북민을 비하하고 북한을 옹호했다며 쟁점화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색깔론이 통했던 냉전 시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철 지난 중북 물결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믿을 국민도 없다. 내란 세력 말고는...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